

활기 넘치는 한국학 자료의 전산화 작업

「조선왕조실록 CD롬」 등 시판도 ... 정보 통일화 시급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고군분투해온 '한국학자료 전산화' 작업이 최근들어 활기를 띠며 진척되고 있다. 민족문화추진회(회장 이우성)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박종국),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현재) 등 국학 연구단체들이 「조선왕조실록」 CD롬 수록과 「세기별(世紀別) 국어용례사전」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 여러 학회와 개인 차원에서 각종 국학자료들의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94년 11월에 열린 '한국학의 문헌학적 연구—그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주최)에서 허성도 교수(서울대)는 '한국학자료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전산입력된 국학자료가 학회나 개인 자료까지 포함해 총 176종에 이르며, 국학 보조자료도 50종 이상 전산입력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언해본」, 「초간두시언해」를 비롯한 132종의 국학자료를 전산입력한 '세기별 국어용례사전' 편찬팀은 현재 첫작품으로서 「17세기 국어사전의(가칭)」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주)서울시스템(대표 이용근)과 손을 잡고 「조선왕조실록」 국역본 CD롬 작업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8월 15일 출시 예정). 한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각기 「국어사전」을 전산 편찬중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문헌목록정보」(1945년 이후의 단행본과 학사학위논문 목록)를 서울시스템의 제작으로 내놓았다.

이런 귀중한 국학자료들의 전산화 작업이 속속 성과물로 선보여짐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는 '국학 연구의 활성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정치사·경제사 등 인접 분야와 창작·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리라는 점에서 막대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작업이다.

「17세기 국어용례사전」 4월 말 선보여

단국대학교의 홍윤표·송철의 교수와 고려대학교의 정광 교수, 정신문화연구원의 송기중 교수 등 4명의 국학자가 주축을 이룬 「세기별 국어용례사전」(15세기~19세기) 편찬작업은 8년 동안 정신문화연구원으로부터 총 8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진행돼왔다. 애초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국역한 「조선왕조실록」의 시판 CD롬 자료의 검색과정.

에 15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의도였으나, 전산입력작업 초기만 해도 방점(傍點) 처리가 기술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방점이 사라진' 17세기부터 착수, 오는 4월에 첫 성과물로서 「17세기 국어사전」이 빛을 보게 된다. 이것은 총 4천 페이지의 3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록된 용례만도 30만개에 이르는 대작으로, 국어사 연구에 목적인 성과물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화의 총결산이 사전으로 나타난다고 볼 때 이 작업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15, 16, 18, 19세기 작업이 인력문제 때문에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으나 '평생의 작업'이라 생각해야겠지요.”

홍윤표 교수는 「17세기 국어사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15세기 국어사전」 편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과물들을 디스크트로 무료배포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 쉽게 쓰고 활용하기에는 CD롬보다 디스크가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홍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어전산화회의 '자료은행'에서는 실제로 국학자료 디스크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크다. 한 예로 「두시언해 초간본」 디스크를 1만5천원에 배포했는데, 1년이 지나자 곳곳에서 「두시언해」 연구논문과 책들이 즉각적인 결실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민족주의가 크게 대두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학이 각광을 받게 될 텐데 내용을 것이 없으면 큰 문제지요. 국학자료 전산화 작업의 시급함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입니다. 번역이든 입력이든 한문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대학생들이라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몰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심각한 인력문제의 대안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세기별 국어용례사전」의 편찬과 맞물려 단국대 강사 이진석씨가 HDP(한글 Data Process)라는 이름의 어문자료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반가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한문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100페이지에 걸친 문헌에서 1분이면 사전용례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어간 하나만 입력하면 각종 활용·곡용 용례가 집약돼 나오는 것이다. 현재 사용설명서를 쉽게 풀어쓰는 작업만 남겨놓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17세기 국어사전」을 편찬하면서 시행착오와 검증을 거쳐 완성되었다. 따라서 「17세기 국어사전」은 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첫 작품인 셈이다.

26년 국역사업의 결실 「왕조실록」 CD롬

한편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을 CD롬에 담은 작업도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실록」은 조선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이 살아온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 때문에 일반인뿐 아니라 연구자들까지 접근에 애를 먹어왔다. 수백권의 책자로 간행된 「실록」의 영인본이나 국역본에서 자료를 찾으려다 보면 방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자료조사에조차 막대한 인적·시간적 노력을 소모해야 했다.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26년에 걸쳐 「실록」 국역사업을 분담 진행하여 지난 93년에 마무리한 바 있다. 그 결과물의 CD롬 작업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지난 94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 일반사업으로 시험판 국역본 「실록」 CD롬을 선보였는데, 이것은 태조에서 세종까지의 사료를 담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에는 태조에서 성종까지의 98책, 연산군에서 인조까지의 158책, 효종에서 철종까지의 145책이 단 '석장'의 CD롬'에 수록 시판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한자 외에도 다양하고 생소한 한자들이 실려 있으므로 새로운 한자폰트 개발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입력된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고속엔진 등 자체 프로그램

“ 핑계가 없습니다 ”

신사고 신감각으로 고객의
최고 만족을 드리기에 위해 책임을 다하는
토탈 에디터리얼 디자인 마루벌

저희는 기획, 편집, 인쇄, 사보, 사사, 광고, 제작 전문 집단입니다.
‘마루벌은 원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원가 다르다는 것!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과 오랜 경험, 철저한 마케팅분석을 통해 의뢰된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내포된 디자인의 인쇄 미디어다운
인쇄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바로 저희 마루벌에 있습니다.
그것은 출판·홍보·광고 기획, 편집, 운문, 교열, 디자인, 식자, 출판,
제판, 인쇄, 코팅, 제본에 이르기까지 저희 마루벌은 전문성과 감각,
정확성과 함께 ‘혼’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에디터리얼 디자인을 원하십니까?

사보, 사사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는
저희 마루벌의 완벽한 최첨단 시설과 프로의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살아있는 제3의 창조물로 만들어 드립니다.

- 기 획 / 원고 기획 · 마케팅 · 편집계획 · 광고 등 종합 컨설팅!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달로그 등 마케팅전략에 의한 감각적 · 차별적 디자인!
- 운문 · 교열 · 교정 / 완벽한 문장 구성 · 충실한 내용 재현을 위한 제3의 창조!
- 식자 · 출력 /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 매킨토시 완벽 출력 서비스!
- 제 판 / 최신 설비에 의한 단색 · 원색 제판!
- 인 쇄 / 예술성 있는 완벽한 색의 재현 · 고품질 인쇄!
- 제 작 /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세심한 코팅 · 제본!

만족이 있습니다

마루벌

Tel : 701-3720 (대표)
Fax : 701-3721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129-22호

최상의 신감각 디자인 최고의 프린팅 테크닉의 만남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전국의
여러 학회 및 개인에 의한 각종
국학자료 전산화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연구활동을 한 차원 도약시키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작업이지만 ‘자료의 공동관리’를 통한
통일된 형태의 정보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게 일고 있다.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스템 데이터베이스부의 이남희씨는
「실록」 국역본의 모든 입력이 끝났고 교정도
90퍼센트 완료되어 여타 프로그램의 진행과
함께 마지막 작업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힌다.
「실록」 CD롬 국역본에는 왕조·연·월·일 등
시간을 기준으로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날
짜색인’, 인명과 지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명
사색인’, 모든 문헌명을 대상으로 한 ‘서명색
인’, 본문의 모든 글자 및 2자 이상의 어구를
대상으로 한 ‘자연어색인’, 주요 주제를 대
상으로 한 ‘주제어 색인’ 등 다섯 종류의 색
인이 만들어져 실록의 모든 기사를 사용자들
이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문으로 된 「실록」 원문의 CD롬 수
록사업도 9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원
순)와 협력하여 표점(表點)작업을 진행중이
다. ‘번역’에 준하는 이 작업만 마무리되면
「실록」의 원문과 국역문을 함께 실은 CD롬
이 출시될 것이다.

‘자료 종합관리기구’ 필요성 절실

현재까지 전산작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출판
된 한국학 관련도서로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잡과방목(雜科榜目)(조선시대 잡과 급
제자 총람)」이 있으며, 뒤이어 「사마방목(司馬
榜目)(조선시대 생원·진사시 급제자 총람)」도
출판단계에 와 있다.

또 디스켓으로 전산입력된 상태의 자료로는
「세기별 국어용례사전」 편찬을 위한 132종의
입력자료 외에도 단국대 국어정보처리연구회
에서 입력한 「곽씨전」「구운몽」「숙영낭자전」

「춘향전」 등 19종이 있다. 또 한국사자료연구
소 등의 학회와 한영균·소강춘 교수 등 개인
의 소장자료로서 「두시연해」「삼국사기」「고
려사」「고전시가」 등 25종이 산발적으로 입력
돼 있다. 그밖에 국학 보조자료로서 「시경」
「서경」「논어」 등의 문헌들을 민족문화추진
회, 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입력했다(이상 94
년 11월 현재).

그러나 이 자료들은 거의 단행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고, 정작 전산화의 파급효과
가 크게 기대되는 것은 「비변사등록」「일성
록」「승정원일기」 등 방대한 규모 때문에 입
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료들이다. 더구나
입력된 단행본 규모의 개인자료들 역시 연구
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인력 낭비를 부르고 있다. 국학자료
전산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자료의 중
합관리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성도 교수는 이렇게 역설한다.

“무엇보다도 큰 과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 전국의 출판사 등에 사장돼 있는 개인 자
료들을 수집, 이를 총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정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한자
하나를 제대로 읽는 데서부터 당시 잘못 쓰여
진 부분을 수정하여 입력하는 것까지 통일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이 결과물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림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허교수는 ‘종합관리기구’의 부재로 인한 폐
해 중의 하나로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간행한
「한국문헌목록정보」를 지적한다. 모든 연구자
들에게 유용한 자료지만 ‘국가기관에서 상품
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 자료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무료
배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화된
자료를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상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까닭으로 「실록」에서
부록처럼 처리된 고·순종대의 실록을 대신할
「승정원일기」가 아직 국역사업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비롯해, 아직도 방대하게
쌓여 있는 한국학 자료들 앞에서 열정을 갖고
분투해야 할 연구원들을 위해 국가의 지속
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 강 기자